



www.woodencrosschurch.com
건강한 복음주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나무십자가한인교회

VISION 2015
하나님의 모든 종만하신 것으로 총만케 하시는 교회 (월 3:19)

교회소식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123기도

매일 정오 12시에 3분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끼금식선교

일주일애 하루, 한끼금식 헌금으로 선교사역에 동참합니다.

1. 리더십 비전회의

오늘 예배 후 리더십비전회의가 있습니다. 임명제직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추수감사 주일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드립니다. 추수의 계절에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넘쳐 날 수 있기 바라며, 감사의 제목을 적어 추수감사헌금을 준비하여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3. 감사나무

다음 주일에는 벽면에 감사나무를 부착하여 감사의 열매를 붙이겠습니다.

4. Potluck

다음 주 다과는 Potluck으로 각 가정에서 준비해 나누겠습니다.

▶ 교회행사일정

* 10.31 : Holywin Night(도네이션 문의 : 이강배전도사)

▶ 교우소식

* 금주 다과 : 이태식목사(범사감사) / 다음 주 : Potluck
* 여성 미용봉사 : 매주 목요일, 최종회 성도가 봉사합니다.
(문의 : 타티아나 집사)

예배위원 안내

이번주	기	1부	안숙영	2부	김선진	헌	강정은	안	9월 이광열
다음주	도		문경화		유은숙	금	천길영	내	10월 정동진

공동기도제목 123기도와 새벽기도 등을 통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추수감사절을 통해 감사와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성도를 위해 유희표 성도, 유은숙 집사, 유지연 자매 가정의 비전과 기도제목을 위해

선교현황

선교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캐 나 다	Young 2080	김 종 현 목 사
캐 나 다	Power to Change	이 정 부 목 사
캐 나 다	밴쿠버 기독교방송	유 화 권 사
캐 나 다	주승리 교회	박 승 식 목 사
캐 나 다	하나선교회	박 사 라 목 사
케 나	Mission Kenya	정 제 호 선교사
북 한	First Steps	Susan Ritchie
한 국	Just Joy	우 종 진 목 사

03-39

2015.10.4

주 일 예 배

1부 9:00 2부 13:30

인도 : 문경돈목사

경배와 찬양	나무십자가위십
회중기도	(1부) 안숙영사모 (2부) 김선진집사
교회소식	인도자
찬양	할레우스 찬양대
다음세대 축복	너는시냇가에
성경	빌립보서 3:17-21
봉헌찬송	484(통533)장
말씀	문경돈목사

예수님의 생장으로 -2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도

- * 찬 송 2015년주제찬양
- * 주 기도문 다 같 이
- * 축 도 문 경 돈 목 사

[성도의 교제]

* 헌금은 들어오시면서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수 요 예 배

매주 수요일 저녁8:00

경배와 찬양	다 같 이
말씀	문 경 돈 목 사
합심기도	다 같 이

새벽기도회

매일(화-토) 6:00

QTzine 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서학당

성경읽기방 (출애굽기편)

매주 (수) 오후 1시

확신과 성숙반

매주(화) 오전10시,오후1시/(목) 오후1시

2015년 하반기 목장나눔

후반기 3주차, 10월 4일-10월 17일

당신을 초대합니다

나무십자가한인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 희생의 삶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증거하는 신앙공동체, 올바른 복음과 말씀에 근거한 비전의 사람들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비전공동체, 선한이웃선교를 통해 복음과 사랑을 실천하는 선교공동체로 세움 받은 교회입니다.

나무십자가한인교회는, 캐나다 복음주의 교단인 Foursquare Gospel Church 에 속한 건전하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2부	오후 1:30
	키즈	오후 1:30
	유쓰	오후 1:30
	청년	오후 1:30

새벽기도	(화-토) 오전 6:00
어머니기도	(목) 오전 10:00
목장모임	목장별 (격주)

성서학당	성경읽기방	(수)오후1시
	성경개관	년 1회
	확신과성숙	년 1회
	제직학교	년 1회



예배안내 QR코드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웹사이트로 연결됩니다.

목장공과

그대로 행할 것이라 (빌립보서 3:12-16)

마음열기

당신의 인생 중 가장 오랜 기다림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다림으로 결국 그 결과를 볼 수 있었던 경우가 있었다면, 목원들에게 소개해 보고, 그렇게 기다릴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었는지 얘기해 봅시다.

내용보기

사도바울은, 어떻게 주를 기다리라고 도전합니까?

1. 신앙의 선배들을 눈 여겨 보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17절).
2.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여러 사람 중에 속하지 말아야 합니다(18-19절).
3.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살아가며 기다려야 합니다(20절).

나누기

1. 당신이 눈 여겨 보아야 할 신앙의 선배(위인)은 누구입니까? 성경의 인물 중에서 그리고 당신의 주변에서 한 사람씩을 소개해 보고, 그 이유를 얘기해 봅시다.
2. 혹, 당신의 신앙여정 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모습(19절 참조)'이 있습니까? 있다면, 왜 그런 모습이 당신에게 나타나는지 점검해 보고,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살아가기 위해 당신에게 어떤 모습이 필요할지 고백해 봅시다.

적용하기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 결단한 것이나 개인과 공동체의 중요한 기도제목을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의 희망이 되는 공동체

목양편지

그래도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밴쿠버와 가까운 워싱턴 주 바로 아래에 있는 오레곤 주 작은 도시 로즈버그의 '엠프콰 커뮤니티 칼리지'(Umpqua Community College)에서 지난 1일(목), 13명이 사망하고, 20여 명이 중상을 입은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간 미국은 총기로 인한 사건과 사고가 적지 않았지만, 또 다시 일어난 캠퍼스 내의 총기사건으로 인해 전 미국은 충격에 휩싸여 있다고 합니다.

미국 대통령 오바마는 방송을 통해 다시 한 번 총기규제법에 대한 강력한 대국민 메시지를 전했지만, 총기회사들이 제공하는 천문학적인 정치자금과 결합되어 있는 많은 정치인들의 성향을 고려해 볼 때, 미국 내 총기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을 속세일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금번 사건에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엠프콰 커뮤니티 칼리지의 학생이면서 범인으로 지목된 크리스 하퍼 머썸(26세)가 학생들을 살해하기 앞서 학생들에게 '종교가 뭐냐?'고 묻는 뒤에 총을 발사했다는 것입니다. 지역 언론에 따르면 "총격범이 교실에 들어온 후 학생들을 교실 바닥에 엎드리게 한 채, 차례로 일으켜 종교를 말하라고 한 후 총을 쏘았다"고 하고, 또한 야후뉴스에 따르면 "학생들을 일렬로 세워 놓고 크리스천이라고 물어서 '그렇다면 머리에 쏘고, '아니'라고 하거나 대답을 하지 않으면 다리에 쏘았다"고 합니다.

아직 범인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 혹은, 어떤 신념으로 금번 사건을 일으켰는지 확인되지 않았고, 여타의 총기사건들의 범인처럼 은둔형 외톨이로 자라온 배경이 드러나기도 했지만, 당시 사건의 그 순간에만 포커스를 맞추어 생각해 본다면, '종교가 뭐냐?'라는 질문에 '크리스천'이라고 대답하였던 학생들의 고백에 엄숙한 존경의 마음을 나타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단지 '크리스천'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넘어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면, '나는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스스로에게 생기게도 됩니다.

1999년 미국 칼럼바인 고등학교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범인은 17살의 여학생, 캐시버널에게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이미 앞서 몇 명의 학생들이 살해된 후의 일어난 일이었기에 캐시버널은 자신의 대답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예견할 수 있었지만, 대답은 망설임 없이 'Yes'였고, 그 순간 울린 총성은 그녀의 목숨을 앗아 가게 됩니다. 단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만으로도, 단지 '크리스천'이라는 이유만으로 유명을 달리한 젊은이들의 짧은 인생이 안타까울 뿐입니다만, 한편으로는 마지막 시대의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음에 강한 영적 경각심을 가져야 할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시대가 가까워 올수록 세상은,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질문하며 도전해 올 것입니다. '그래도 당신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섬기는 사람들

담임목사 문경돈

교육목사(청년) 정병완
전도사(유쓰,찬양) 이강배
전도사(드림,비전) 김은경
할레루스찬양대 문경화
예배반주 양성윤

교회 (주일예배/새벽기도회)

1460 Lansdowne Dr. Coquitlam

שלמחנמולג (성서학당/그룹)

2724 Barnet Hwy Dr. Coquitlam

Contact (전화/이메일)

778-772-4738
woodencrosschuech@gmail.com